

# 닭이 자식같아야 소득이 좋아집니다



“초창기때 5천수에서  
'우리별 1호'가 하늘을  
나는 지금까지 5천수를  
한다면 남들이 웃어요.  
그렇지만 몇십만수를  
하는 어느농가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세상에서 양계를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취재/김동진 기자

**평**생 채란업을 해온 사  
람은 누구나 할것 없  
이 닭과 계란의 소중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24년간 줄곧 채란업만을  
고집해온 김정은(金正殷, 69  
세)사장에게는 더욱 그렇다.  
닭이 하는 행동만 보아도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황산에서 미사리방면으로

화훼단지를 끼고 돌다보면  
야산밑에 아담하게 자리잡  
은 양계장이 있다.

겉보기에는 계사가 오래  
되어 양계박물관을 연상케  
하지만 계사내부에 들어서  
면 윤기나듯 청결하게 정돈  
된 시설이며 외부방문객을  
인식하듯 멈칫거리며 모이  
를 쪼고 있는 닭들이 푹푹  
한 인정까지 느끼게 한다.

김사장은 일제시대인 1923  
년 강원도 회양에서 태어났  
다. 끼니를 연명하기 힘들  
당시 12식구의 생활터이던  
농토마저 일본정부에 몰수  
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꾸려  
가며 어린시절을 보내야했다.

광복이후 6.25가 발발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압  
록강까지 진격한 국군들이  
후퇴(1.4후퇴)하기 시작하는



◀ 김정은  
큰아들이  
재학중이던  
연대 교정에서

통에 국군을 따라 남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를 계기로 군과 인연이 되어 18년간의 군생활을 하게 된다.

7년간 부산에서 생활할 때인 '55년 32세 나이로 부인 유영보(59세)씨를 만나 결혼하였는데 우연히 부인도 함경도 사리원이 고향이라 동병상련의 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59년 철원(화지리)에서 10여년간 포병상사(인사계)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근검, 절약을 몸소 실천하여 전역할 당시인 '68년(당시45세) 4월에는 “제대하면 군대살림을 누가 맡겠는가” 할 정도로 무슨일이든 매사

가 정확한 사람이란 인정을 받으며 군생활을 마쳤다.

제대후 정착한 곳은 하남시 풍산동, 45세의 늦은 나이로 양계인생을 걷게 되었다.

김사장은 슬하에 2남2녀를 두었는데 두딸 모두 출가하여 아직도 교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연대를 졸업하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막내아들은 성대 2학년에 재학중이다. 이처럼 24년동안 5,000수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면서도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교육시켜 모범가정으로 불리워지고있다.

처음 양계를 시작할 당시

주위에는 양계를 부업삼아 꾸려나가는 곳이 몇군데 있을 뿐이고 규모가 커봤자 2~3천수가 고작이었다.

자본이 없는 관계로 임대를 얻은 대지에 400마리 규모의 계사를 설계부터 건축까지 직접 시공을 했으며 케이지 자재도 손수 조립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인건비를 절약했다.

지금은 길이 포장이 됐지만 초창기만해도 여름이면 장화를 신어야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사정이 나빴으며 전기가 있긴했지만 대부분의 농장에까지 설치가 되지 않아 점등을 위해 호야등(남포등)을 달아 놓고 낮에는 기름을 여나르고 저녁때는 등(燈)을 달는게 일이었으며 새벽에는 불이 꺼질까, 화재의 염려가 없을까 염려스러워 4시에 일어나 등을 지키며 닭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다.

요즘에는 사료를 두번 주지만 처음에는 사료를 자주 주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4번씩을 준일도 있고 영양제를 대신해 부토(낙엽이 썩어서 쌓인것)를 지게

로 날라다 떨어진 일도 있었으며 사료가 도착하지 않을시에는 1일먹일 것을 3일에 나누어 주고 때로는 풀과 아카시아잎을 생선가시와 버무려 사료와 섞어먹인 적도 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질병인데 처음 200수를 입추시키고 마렉병(MD)으로 인해 50%의 손실을 본 적도 있으나 몇년후 백신이 개발되면서 폐사가 줄어들고 육성률과 산란율이 향상되어 육성률은 거의 100%, 산란률은 97%를 기록하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방역과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당시만해도 ND, MD, ILT만 예방하면 됐는데 지금은 약으로 인해 닭들이 더욱 허약해짐을 느낄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병들이 속출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육추실, 육성실을 확보하면서 '70년대에는 5천수규모로 계사를 늘렸는데 당시기 직접 조립한 케이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파란 페인트색이 그대로 있을 정도로 튼튼함을 보여줬다. 이후 농장주위가 그린벨트로 묶이

면서 주위 양계장들이 이주해 갔는데 김사장은 욕심이 없었고 교육문제가 앞섰기 때문에 굳이 머물게 됐다한다.

“돈벌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천직이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 당시의 5천수에서 ‘우리별 1호’가 하늘을 들고 있는 지금까지 5천수를 한다면 남들이 웃을 거요. 그렇지만 몇십만수를 하는 어느 농가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양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계업을 하며 그에게 큰 힘이 됐던 것은 70년초에 조직된 “동축회”였다. 서울 부화장의 윤경중씨를 비롯

해 18명으로 구성된 동축회는 채란계 12만수 규모를 자랑하며 양계업의 한 몫을 담당했다.

출범당시 고 오세정교수가 축하연설을 하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해주고 있다. 동축회는 이후 24개 농가로 늘어나 단결력을 보였는데 육추부터 판매까지 각종 정보교환을 하는 등 사료과동, 병아리과동 시 불황타개책을 마련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회원이 전업을 한 상태이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김사장을 비롯해 손에 꼽을 정도이다.

창설멤버였던 김사장과 주



▲계사내부 전경과 20여년을 넘게 써오고 있는 ‘금저울’ 선별기



▲왼쪽부터 김정은, 주낙인, 김현열씨는 초창기부터 유일한 3총사로 시간이 허락하면 등산을 간다.

낙인씨, 김현열씨는 지금도 삼총사로 기회만 있으면 등산을 떠나곤 한다.

김사장이 건강하게 양계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일하는 생활과 시간이 허락하면 떠나는 등산 때문일 것이다.

등산이 취미인 그는 국내의 명산은 거의 정복했을 정도로 등산광이다. 산 정상을 정복한후 “야호!” 소리를 힘있게 외치면 만사가 후련하며 이곳에서 인생을 느낄 수 있어 사람이 왜 산을 찾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부인 유영보 씨는 아직도 그대로 쓰고있는 유일한 물건인 이 금저울로 생산되는 계란의 무게를 알아 상인

또는 납품처에 신용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손으로 계란을 들어보면 웬만한 무게를 파악할 수 있어 80권의 하루물량을 거뜬히 선별할 수 있도록 선별전문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위주로 출하를 하여 항상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마련하였다.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기 때문에 중추만을 받아 채란업을 해나간다는 김사장은 부부가 같이 외출하기가 힘들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결코 하는일에 대해 후회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자식들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하지만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하면 잔

병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양계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능력이 있는데 까지는 해야죠. 건강이 허락되고 힘이 된다면요”

이처럼 아직도 각종세미나에 참석하며 광주채란분과위원회에는 매월 참석하는 열성파이다.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양계인을 만나는데 유일한 낙인 것이다.

양계업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통문제라 지적하며 양계인의 단합, 계란고시가격 준수, 외상은 절대로 주지말자는 대책까지 일러주었다.

“양계업을 하려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세밀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닭과 싸워서 안될 경우는 함께 죽을 각오까지 해야합니다”라며 경험상 양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귀감의 말을 전해준다.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로 한업종을 이끌어가며 낙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일에 얼마나 열심히 충실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양계를 24년동안 이끌어온 김정은씨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